불교 숭앙한 인도 대표하는 詩聖

'불교로 읽는 古典' 시즌 2 – ⑬ 타고르의 저서

1913년,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인도의 시성(詩聖) 라빈드라나드 타고르(1861~1941)는 그의 마지막 생일날, 병상에서 부처님을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석가모니 부처님 생각이 났다. 이는 내 마음 속에서 스스로 감지할 수 있었다. 80년 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자신 또한 이처럼 위대한 분의 아름다움과 큰 덕을 공유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타고르의 삶의 중심이 된 그의 철학, 종교사상과 문학, 음악 그리고 미술세계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인도의 근대문화가 창조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타고르는 마하뜨마 간디와 더불어 '현대인도의 아버지'로 불린다.

타고르는 원래 힌두교도 집안에 태어나 성장하면서 종교적인 이념의 차이는 있으나 불교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접하면서 2500여 년 동안 그 땅에 전래되어온 광범위한 불교문화의 영향이 깊이 잠재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타고르가 태어날 당시, 벵갈 지방인들의 의식 가운데는 힌두교에 밀렸던 불교 부활에 대한 기운이 차츰 싹터나던 전환기였음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세류와 사상의 흐름 속에서 감수성이 풍부했던 소년에서 청년에 이르는 타고르의 성장기는 광범위한 종교적 영향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물론 당시 타고르 집안 내에서의 〈불전연구〉가 벵갈인 학자들과의 교류와 아세아 불교국가들로의 순방 등에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이었을 것이다.

또한 광활한 인도 땅에 산재되어있는 무수한 불교성지 중에서도 특히 녹야원과 붓다가야를 찾아갔을 때의 깊은 감동을 타고르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나는 부처님의 한 평신도이기도 합니다. 나는 부처님의 존재에 대하여 전혀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치아'가 보존되어 있는 성지에 가서, 또한 부처님의 발자국이 돌에 조각되어져 있음을 대했을 때, 나는 얼마나 가깝게 부처님의 존재를 감지하였는지 모릅니다."

타고르는 만년에 이르러서도 계속 부처님을 성인으로서 칭송해 마지않았다. 1901년, 타고르는 인가 한 채도 없는 황무지에 자신이 꿈꾸어오던 교육의 터전을 잡고 '숲속의 배움터'라 이름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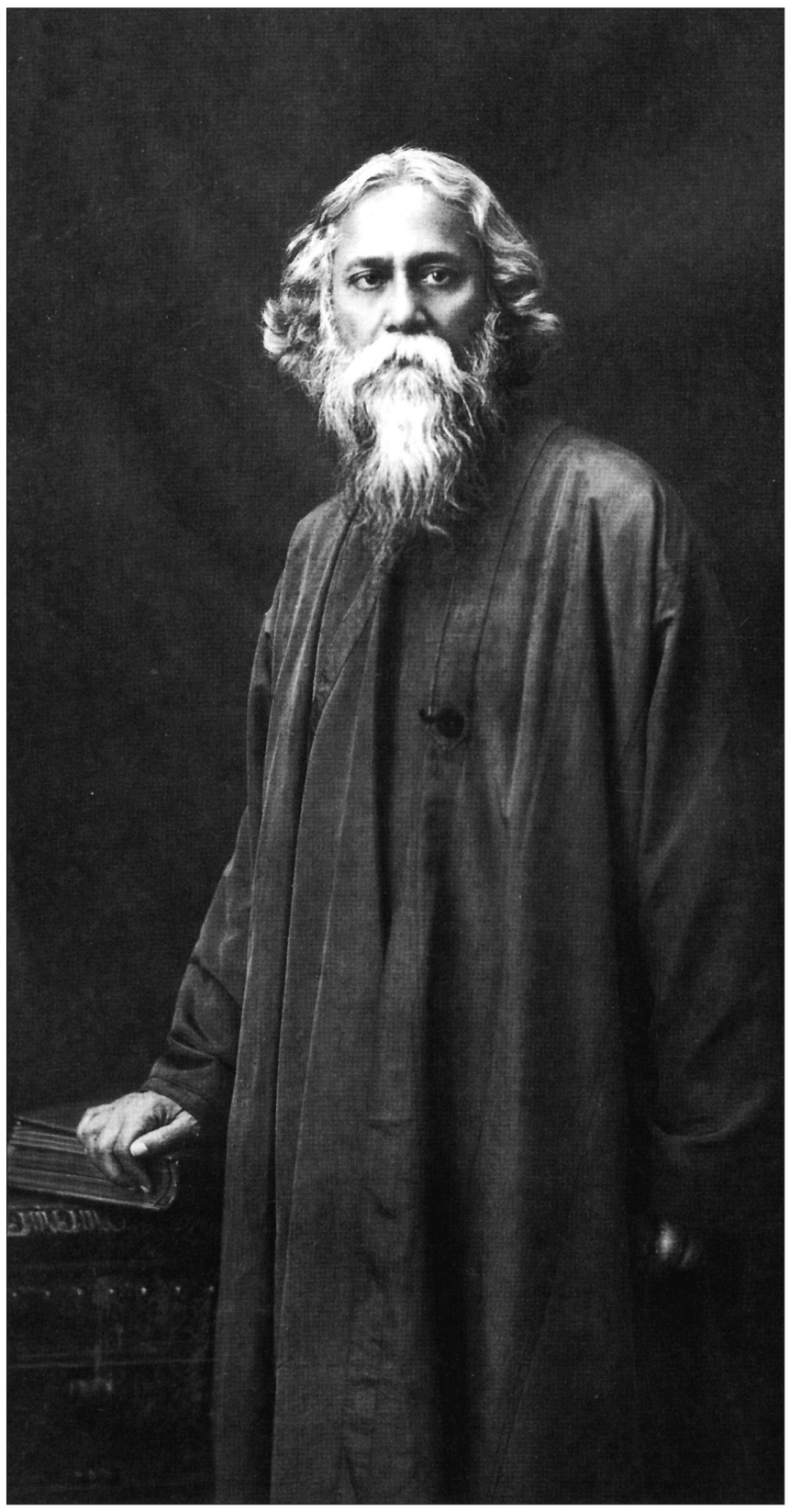
마냥 자란 풀숲 속에 짙은 초록의 잡목들이 즐비한 그 황무지는 타고르 눈에는 바로 성지로 보였던 것이며, 끝내 그의 교육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성스러운 터전으로 자리 잡았다.

타고르는 어려서 학교에 보내졌을 때, 어린이들에게 학교 교실은 감옥과 같다고 하며 등교를 거부했다. 부모님은 아들의 뜻도 모르고 계속 등교하기를 원했으나 아들은 끝내 거부했다. 타고르의 부친은 가정교사를 청하여 아들의 교육을 부탁하는 한편 자신도 아들에게 힌두경전과 종교철학을 지도했다. 이런 연유로 타고르에게는 학교 졸업장이 없다. 청년시절 영국 유학도 청강생으로만 머물렀다.

힌두의 성자들도, 또한 불교의 성자들도 그들의 교의는 언제나 무릎 밑 가까이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비밀스레 전수했듯이, 타고르의 교육이념과 방침 역시 옛 성자들의 가르침의 방침을 따르고자 하였다. 이러한 가르침이 진정한 인간교육이라는 확고한 타고르의 교육이념이었다.

지금도 타고르 대학 '뷔슈봐 바라띠-숲속의 배움터'에서는 거목이 된 맹고나무들이 울창한 교정 나무그늘 아래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원 학생들의 강의까지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뭇가지에 칠판 하나 걸어놓고 그 밑에 스승은 매우 간단히 만들어진 나무의자에 앉아 강의한다. 학생들은 모두 잔디 풀도 고르지 않은 땅위에 모여 앉아 스승의 말씀을 듣는다.

해묵은 맹고나무 가지 위에서는 가끔 심심치 않게 원숭이들이 이리저리 가지에서 가지로 옮겨 다니며 놀고 있건만 아이들은 눈길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은 항상 모든 자연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기에 별 신경들을 쓰지 않는다. 거기에 꽃이 피고 지고 새들과 나비들이 날고 있어도 그것들은 모두 당연히 우리와 더불어 존재하는 아름답고 고마운 벗들이라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그 속에서 호흡하며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참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보였다. 이 역시 범주(梵住)의 숭고한 정신의 경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타고르(1861~1941)의 생전 사진. 인도의 시인이자 사상가로 한국에도 친숙한 인물이다. 그는 서정시 〈기탄잘리〉(1912)로 1913년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나는 부처님의 평신도"… 저서 곳곳에 부처 숭배

자신이 건립한 '숲속의 배움터'엔 불교학과 개설

선지식들 보인 길을 묵묵히 작품과 저서에 투영

타고르는 그의 저서 〈고행자의 숲〉에서도 다음과 같이 자신의 교육이념을 피력하고 있어 독자들인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다.

"베다의 성인들만이 아니라, 부처도 수없는 맹고나무 숲에서 또는 수없는 죽림(竹林)에서 많은 설법을 하셨다. 부처에게 왕궁은 부처님의 설법 자리로는 타당치 않았다. 풀들이 가득히 우거진 자리만이 가장 어울렸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안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타고르가 위에 남긴 저술대로 공들여 세운 국제대학 '뷔슈봐 바라띠-숲속의 배움터'는 교육과목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목의 하나로 '불교학과'를 개설하여 불교연구의 대학이라는 면모를 확실히 구축해나갔다. 이렇게 하여 타고르는 다만 인도의 고대 우빠니샤드 시대에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교수행의 자리라든가 장인교육의 숲이란 이상만을 추구한 것만은 아니었다. 타고르는 그의 인생론에서 부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분명히 나는 활동을 피하고 있다. 그럼에도 말과 생각과 행위에 있어서 악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활동에 대하여만 말하는 것이다. 제자여, 나는 분명히 〈멸한다〉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거만함의 '멸', 음탕함의 '멸', 사악함의 '멸', 무지의 '멸'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타인을 용서하는 것과 사랑과 자비와 진리 등은 결코 말하여 없어져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또한 부처님이 설하신 해탈의 교의는 무명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들의 의식을 어둡게 하여 우리들 자신의 자아의 한계 가운데서 의식의 출입문을 닫아버리고 마는 무지함이다. 이와 같은 무지, 즉 이와 같은 의식의 제한이 자아의 과도한 고립을 만들어내고 또한 이렇게 해서 모든 쓸데없는 오만함이나 탐욕이나 자기본위적인 인간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잔악행위 등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인간은 잠자고 있는 동안은 육체의 비좁은 활동만이 허락되는 좁은 공간 속에 갇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인간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환경과의 다양한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무명의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자아라고 하는 속에 갇혀있는 것이다. 의식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지고의 실제로써는 충분히 눈떠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의 실체를 알 수 없는 것이다."

타고르는 어느 날, 벵갈 지방의 시골마을에서 길을 걷는데 우연치 않게 어느 종파엔가 속한 듯한 고행자 두 사람을 만났다. 그는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느 종파에 속해 있나요? 그리고 그 종파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 좀 해주겠습니까?"

그중 한 사람이 좀 주저하고 있다가, "그것은 간단히 한 마디로 설명할 수 없다"며 사양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달랐다. "아니죠,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우리들 종교상의 스승님의 지도하에 자신의 영혼을 알 수 있는 길을 먼저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우리들 자신 혹은 정신 속에서 '지고의 혼'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고르는 "그렇다면 어찌 세계 모든 곳에서 설하지 않는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목이 마른 사람들이 혼자서도 강가를 찾아가겠지요"라고 답하자 타고르는 다시 또 질문했다. "과연 그럴까요? 사람들이 찾아올까요?"

그러자 그는 부드럽고 선한 미소를 지으며 불안이나 성급함, 조급함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자신 있게 답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확실히 찾아올 것입니다!"

사실 그렇다. 우리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길은 침묵 가운데서도 성인들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자신의 정신세계를 곧게 정화시켜나가는 길이 바로 자신이 진정으로 희구하고 기원하고 염원하는, 진정 밝고 맑은 열반으로 이어져가는 길(道)이라고 타고르는 스스로 설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도 성불하신 석가모니의 한 신도라고 감히 설파하며 부처님 말씀에 동의하고 위안을 받았다는 기록은 우리 가슴에 긴 여운을 남기고 있다.



〈끝〉

김양식(시인 · 인도박물관장)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청견스님의 천만배 완결

깨달은 절수행이란?

다르마킹칼리지 (절수행교육)

◎ 완벽한 : 표정, 자세, 동작, 호흡법, 동작알아차림, 감사염송법 텅빈 고요 삼매체험
◎ 순간 찰라 번뇌 망상, 잡생각 싹 끊는 비전
◎ 순간 찰라 마음이 크고 넓고 높게 큰마음 되는 비전
◎ 저절로 자동단전복식호흡의 비전
◎ 우주 태양+지구 땅의 기운 초고속 충전 비전
◎ 순수의식 참마음 참나 불성 초견성 비전

※ 상기 교육 마스터한 수행자에겐
◎ 스트레스와 부정적 맘으로 자율신경 무너져 심장 쿵쿵 뛰고 숨은 거칠고 공격홀몬 쏟아져 온몸 지배하는 병불행지옥 순간을 극복하는 지혜의 비전(10초~20초)
◎ 신명나는 인류최고의 가장 쉽고 온전한 빠른 요지부동 와선명상삼매를 체험케 함

절교육일정 : 매주 화,수,목,금,토 오후 2시 ~ 3시30분 (1일 3명 예약)
(깨달은 절수행이란? 책 읽고 홈페이지 참고하고 동참 요망)
절교육대상 : 상위 1% 수험생, 고시생, 명문대생, 한의사, 연구원, 벤처 CEO, IT연구원 예술인, 특별 우선 교육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6 (신지2리 1101-1)
문 의 : 010-3487-0035 www.법왕정사.net

깨달은공동체 법왕정사 한불수행문화연구소